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

KVCA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리즈] 로보 어드바이저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IPEV Guideline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Contents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October vol.112

03

뉴스 & 리뷰 NEWS & REVIEW

04 KVCA 소식

- 2017 벤처창업대전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 제1회 출입기자 대상 벤처캐피탈 이해 기본과정 개최
- 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위원회 개최(정책·윤리·인력 위원회)

05 연수원 소식

- 「2017년 남부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개최
- 「2017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초급과정」 개최
- 10월 교육 안내

07 투자 협력·M&A

- 환경산업 투자유치지원
- 벤처투자 사랑방
- M&A 활성화 지원 사업

10 R&D사업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11 협회장 동정

- 제9회 GGGF 개막식 참석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 국무총리와의 규제개선 간담회 참석

12 회원사 소식

14 투자 유망기업 탐방

- (주)페타리

17

이슈 ISSUE

18 [4차 산업혁명 시리즈] 로보 어드바이저

22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25 IPEV Guideline(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27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30 벤처캐피탈 법률 Q&A

31

시장 동향 Market Trend

32 8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38 (VC 포커스) '17년 상반기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41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통권 112호 10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현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뉴스 & 리뷰

NEWS & REVIEW

2017 벤처창업대전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9월 20일(수) VR 빌딩 지하 1층 레드룸에서 '2017 벤처창업대전 정부 포상'을 위한 포상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은 본 회 이용성 회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김주화 과장, 케이티비네트워크 신진호 대표, 서울대학교 이영민 교수,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대표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한 시간 가량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투자 활성화 부문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였다. 투자 활성화 부문에는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장관 표창 3점 등 총 6점의 포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적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후보자를 상신하면 11월 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시상식은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제1회 출입기자 대상 벤처캐피탈 이해 기본과정 개최

9월 27일(수)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이해 기본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출입처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입사한 기자를 대상으로 본 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교육 자리였다. 30여 명의 기자가 참석하여 업계의 연혁, 용어와 제도, 조합 및 투자계약 등 궁금했던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 기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협회는 언론에서 바라보는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본 회가 9월 15일(금)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벤처기업협회와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에 취재기자를 비롯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공적 펀드 확대 기조에 따른 벤처투자를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유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 전문가의 '벤처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에 대한 발제 이후에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 및 김주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 관리과장과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 개최(정책·윤리·인력 위원회)

9월 5일(화), 6일(수) 양일에 걸쳐 협회 내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3개 위원회(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인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5일에는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윤리위원회와 인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6일에는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안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추진 방향, 통합법(기업투자촉진법) 추진 방향, VC의 우선주 투자 동향 및 평가 등이었다.

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 교류회 진행

● 일자

2017년 9월 13일(수) 19:00 ~

● 진행내용

-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대표 박문수
-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상무 손민호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이사 강신혁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이사 길준일
- 영신창업투자 이사 이홍세
- 세종벤처파트너스 부장 류대호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 백인수
-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팀장 김태우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차장 이준혁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선임심사역 정주완

「남부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개최

지난해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올해 부산과 춘천에서 남부권 과정으로 확대 개최하였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본 과정에는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교육은 심사인력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 일자 (공통) 2017년 9월 4일 ~ 9월 8일 (3일 출석, 1박 2일 합숙)

(필수) 2017년 9월 13일 ~ 9월 15일 (2박 3일 합숙)

● 장소 (공통) 부산 센텀호텔 드블랑홀 / (필수) 춘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아쿠아홀

공통과정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개요 & 필수 용어 정리	비에이파트너스 상무 이정석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상무 손민호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단계별 특징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동철
벤처캐피탈과 법률 - 창업지원법, 벤처법, 자동법 등	Cosmos Incubator 대표/변호사 이종경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 정영관
중국 VC/PEF/M&A 시장 현황 및 투자 Case Study	Vision Creator 대표 정주용
Valuation & Pricing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벤처기업 M&A 절차 및 Case Study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회수 시점에 대한 이해 - 코스닥, 코넥스, SPAC 등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VC투자 핫 이슈 I.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제조/IT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이사 강신혁
벤처기업 투자와 Value up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건수
VC투자 핫 이슈 II.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문화콘텐츠&프로젝트	캐피탈원 대표 여한구
VC투자 핫 이슈 III.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바이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신정섭
SCREENING & ANALYZING BUSINESS PLANS,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전략 및 사례	에트리홀딩스 대표 조병식
필수과정	
내 용	강 사
사업타당성 등 분석 사례 및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사례	
· ICT 서비스/유통 서비스 · 제조/전기/기계/장비 · 바이오	영신창업투자 이사 이홍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팀장 백인수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이사 길준일
비상장기업 재무(부실예측) 분석(업종별 Case Study)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대표 박문수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 신주(RCPS) 인수 투자계약서(Refixing, Tag-along, 이해관계인 등) · CB, BW 투자계약서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류권영
VC의 Fundraising: 펀드기획과 제안기법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실장 한철호
심사보고서 팀별 발표(8팀)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이사 길준일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대표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상무 손민호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류권영 영신창업투자 이사 이홍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팀장 김태우

10월 교육 안내

- **교육명**
2017년 제23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 **운영 형태**
4박 5일 합숙 / 3일 출석
- **일자**
10월 16일(월) ~ 20일(금) /
10월 25일(수) ~ 27일(금)
- **대상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 관련 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인력 양성 교육
- **신청 기한** : 9월 8일까지(조기 마감됨)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2017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초급과정」 개최

본 교육과정은 9월 20일부터 6일간 업계 기획관리 및 경영지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실습 비중을 높여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급과정은 12월 초 개최 예정이다.

- **일자** 2017년 9월 20일 ~ 9월 27일
- **장소** 강남 강연정류장 세미나실 A

조합 개론	
내용	강사
(이론) • VC 및 VC조합 개요 • 벤처 조합(조합의 cycle) • 정부출자사업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조합 결성	
내용	강사
(이론) 조합 결성 절차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이론) 조합 규약 검토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조별 실습) 조합 규약 제정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조별 실습 및 피드백) 조합 결성 • 결성계획서 작성 제출 • 고유번호증 신청 발급 • 결성 총회 자료 작성 및 준비(안내공문, 의안설명서, 의사록 등) • 수탁계약 • ERP 사용 실무 • 출자증서 발급	이현 팀장 (티에스인스트먼트) 양윤미 차장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조합 운용	
내용	강사
(이론) 회계처리 (조별 실습 및 피드백) • 조합의 전표처리 • 분개 및 문제풀이 • 조합 결산재무제표 작성	홍수곤 회계사 (신우회계법인)
(이론) 조합의 투자/회수와 관리업무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조별 피드백) 조합 규약 제정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이론) • 행위제한 규정 등 법률 • 준법감시인 업무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황유진 부장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론) 조합의 세금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조별 실습 및 피드백) • 조합의 일반 세무신고 작성	김영옥 차장 (엔베스터)
조합 해산	
내용	강사
(이론) 조합의 분배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조별 실습 및 피드백) • 비용 안분 및 과세표준 구하기 •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	황유진 부장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이론) 조합의 해산·청산	박미라 대표 (MIRA PARTNERS)

환경산업 투자유치지원

■ 환경기업 투자아카데미 심화 과정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12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환경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기업 투자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개최하였다. 본 교육은 지난 7월에 개최된 투자아카데미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투자설명서 컨설팅을 받는 기업에 투자계약서 실무부터 자금조달, 환경기업 투자사례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투자아카데미를 수료한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투자콘퍼런스, 해외투자로드쇼를 지원할 계획이며 본 회의 계획에 맞추어 환경기업에 대한 심사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1, 2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지난 9월 13일, 20일 「제1, 2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와 「제2차 환경기업 투자유치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월 13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대중교통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하는 애니텍, 아바오 등 투자 유망 환경기업 1, 2차 총 8개사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1, 2차 총 1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 상담 및 IR이 진행되었다.

본회는 향후 △제3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10월), △ 투자콘퍼런스(11월), △ 해외투자로드쇼(11월) 등을 통해 투자 유망 환경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2차 환경기업 투자유치 자문단 간담회

본회는 지난 9월 20일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 논의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제2차 환경기업 투자유치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에코앰파트너스 임대웅 대표의 특강 진행 후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미래유망환경펀드 운영발전 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본회는 향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 논의 등 환경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문의: 투자협력팀 권용석 연구원(02-2156-2131, kys@kvca.or.kr)

벤처투자 사랑방

9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매월 넷째 주 화요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심사역이 직접 투자멘토링을 진행하는 '벤처투자 사랑방'이 지난 9월 19일 개최되었다. 메디컬커뮤니티 등 중소·벤처기업 8개사와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였으며 벤처투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점차 참여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벤처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통로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벤처투자 사랑방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 참여 신청 링크 (<http://cafe.kvca.or.kr> invest@kvca.or.kr)



M&A 활성화 지원 사업

■ 2017년도 3차 M&A 자문기관 워크숍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반기 주요 추진내용 안내 및 보수교육을 통해 자문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보유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2017년도 3차 M&A 자문기관 워크숍'을 역삼동 GS타워 2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M&A 지원센터·자문기관, 기술보유기업, 벤처캐피탈 등 60여 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M&A 활성화 사업 하반기 주요 추진내용 안내, 자문기관 추천 기술보유기업 IR 발표, 자문기관 보수교육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IR 발표기업 3개사는 벤처캐피탈 등과 1:1 매칭상담을 별도로 진행하여 M&A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폭넓은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히, 글로벌 M&A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한 변호사가 특강 강사로 참여하여 크로스보더 M&A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사례 위주로 설명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행사종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센터, 우수 자문기관이 참여하여 M&A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격월 단위로 개최되는 M&A 자문기관 워크숍은 자문기관, 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정기행사로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현황, 특강, 매칭 상담 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 전문기관과 네트워킹 기회를 마주할 좋은 기회이다. 관련 문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 해외투자기관 매칭데이 개최

본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국내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투자기관 매칭데이'를 9월 21일(목) VR 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본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업 6개사와 투자기관 9개사가 참여하였다. 행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의 피칭(Pitching)과 투자기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해외투자기관 매칭데이 외에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진출 세미나, 기술코칭, 투자상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 과제는 국내외 우수 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사업을 수행



■ Tech-Up Day 개최

본회는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Tech-up Day를 지난 9월 27일(수) VR 빌딩에서 개최하였다. TCB 펀드 투자유치(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바이오·의료 라이선싱 아웃(파마페닉스), 중견기업 협업 상담(코맥스)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는 9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본회는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기술평가비용 연계지원, 기술자료 코칭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9회 GGGF 개막식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9월 20일(수) 서울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7 GGGF(Good Growth Global Forum 2017)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이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행사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 (사)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GEFRI)이 주최하고 (사)아시아방송포럼, 한

중기업가연합회, 아주M&C가 주관하였다. 포럼은 『넥스트 코리아, 1(ONE) Asia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진행되어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

9월 26일(화)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본회 이용성 회장을 비롯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등 7개 범혁신 단체의 회장단이 속해있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신협)’ 출범식이 개최됐다. 혁신협은 출범 공동선언문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선도, 4차 산업 혁명의 주체로서 책임 등에 앞장선다고 발표하며, 정책개발과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벤처 생태계 구성에 앞장서겠다고 출범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와의 규제개선 간담회 참석

9월 28일(목) 카이스트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의 규제개선 간담회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여 중기벤처 규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는 총 30여 명으로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차관, 대전광역시 시장 등이 참석하였고 민간에

서는 본 회 이용성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여성벤처협회 회장,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카이스트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기관별 안건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센트럴 생겨진천 농식품 투자조합’은 최근 ‘힐링메뉴’가 발행한 8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힐링메뉴’는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을 배달하는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 대상의 건강 식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힐링메뉴’에 주목하게 됐다. 식단의 우수한 질과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마수걸이 펀드를 조성한 지 약 1년여 만에 발 빠르게 재원을 소진하고 있다. 글로벌파트너십 펀드의 재원 대부분이 소진됐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계약이 확정되면 신규 투자가 마무리된다. 운용 중인 투자조합 ‘Translink 글로벌파트너십 투자조합’은 현재까지 8건의 투자로 결성총액 305억 원 중 약 60%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틱인베스트먼트

벤처 부문과 사모투자(PE) 부문을 서로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분할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벤처 부문을 100% 자회사로 분할해 스틱 아래에 두는 지배구조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 이러한 구조로 분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분할은 이르면 연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엘비인베스트먼트

최근 벤처와 PE 사업 부문의 분할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조직 내 PE 부문을 인적분할해 LB PE(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분할 작업을 마치면 (주) LB가 LB인베스트먼트와 LB PE 지분을 각각 100%씩 보유하게 된다. LB PE는 코엑스 무역센터 빌딩에 새 동지를 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케이비인베스트먼트-마그나인베스트먼트

바이오기업 지엘팜텍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마그나인베스트먼트(30억 원), IBKC-SBI 바이오펀드 제1호(30억 원), KB인베스트먼트, KB Pre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7억 원) 등이다. 2002년 설립된 지엘팜텍은 주로 퇴행성질환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바이오 업체다.

지앤티벤처투자

지앤티벤처투자의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와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 GS리테일 신성장 투자조합 1호’는 ‘닥터키친’에 각각 13억 원, 10억 원을 투자했다. 2015년 설립된 ‘닥터키친’은 데이터 중심의 식이요법을 전문 연구 중으로, 주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벤처기업이다.

케이티비네트웍

‘KTBN 11호 한중 시너지 펀드’와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을 통해 최근 상화가 발행한 우선주 10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2007년 뉴미디어 회사로 설립된 상화는 영상 등 비주얼 콘텐츠에서부터 로보틱스 제어, 하드웨어 제작 기술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뉴미디어 기업이다.

캡스톤파트너스

‘2015 KIF-캡스톤 K-Global IOT 초기투자조합’을 통해 ‘엑스브레인’의 전환상환우선주 5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엑스브레인’은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플랫폼 ‘다리아’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2014년 설립됐다. 관계자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도 정확도 높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엑스브레인에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세일스탁’에 50만 달러(약 5억 6,000만 원)를 투자했다. 지난해 말 시리즈 B 단계에서 300만 달러(약 34억 원)를 투자한 이후 추가 투자다. 이번 투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펀드’,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 ‘한국투자 Venture 15-1~5호’ 등이 참여했다.

신규회원사 가입

회사명	대표이사	회사주소
인터텔류파트너스	김영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605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동관 911-913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KVCA

회원사 소식

신규 회원사 소개

인터밸류파트너스(주)

| 회사명의 의미(혹은 사훈과 그 의미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인터밸류파트너스(주)는 '사이의', '상호 간의'라는 뜻을 가진 "Inter"와 '가치', '중요성'이라는 뜻의 "Value"를 조합해 만든 이름으로 '투자자와 피 투자사의 관계, 서로 다른 투자기업 간의 가치를 연결하다.' 나아가 '함께할 때 더 커지는 가치를 지향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와 관계된 모든 기업을 Alliance 관계로 생각함으로써 '투자의 인연을 계기로 성공적 투자를 넘어서 멋진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역점 투자 분야

당사는 현재 "고급기술인력펀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석 박사급 고급기술인력의 창업률이 낮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 특허 대비 사업화율이 저조한 와중,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한 고급기술인력은 저희의 주요 투자대상입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 대두로 ICT 기반 유수의 혁신기업들이 발굴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고급기술인력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분야에도 연계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OLED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주)비아트론을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김형준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창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랜 산업계 경험을 통해 구축된 성공한 선배 기업의 네트워크는 초기창업기업에 유익한 멘토풀이 될 것입니다.

| 투자 원칙 1순위

투자라는 행위는 기업의 잠재성을 보고 미래가치에 동참하는 행위이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산업과 시장을 분석할지라도 100%의 예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진 기업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성원의 능력, 열정, 가치관 등에 관한 판단은 기업을 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산업 트렌드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인력으로 구성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한다면 미래가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향후 펀드레이징 전략

당사는 설립 1년 미만의 신생 창투사로, 투자, 회수 실적은 아직 미비합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리스트 1세대라고 불릴 만큼 오랜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비롯하여 산업계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 벤처투자자와 기업 운영 경험을 두루 겸비한 인력 등 다양한 인력 간 조합으로 성공적인 벤처투자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내세워, 재무구조가 건실한 모회사의 지원 속에서 다양한 앵커 출자자의 출자사업에 전략적으로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반 LP 모집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다양한 LP 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및 협회에 바라는 점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전하고 선진적인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한편 협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심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 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당사는 직원 채용 시 전문성, 일에 대한 열정, 긍정적 오픈마인드와 함께 예리한 통찰력, 그가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합니다. 당사의 이름에서 추구하는 상호 간의 가치는 회사와 기업뿐만이 아닌 회사와 직원 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터밸류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발판 삼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기업 탐방

위치 측위기반 물류, 안전, 보안 솔루션 분야 선두주자 (주)페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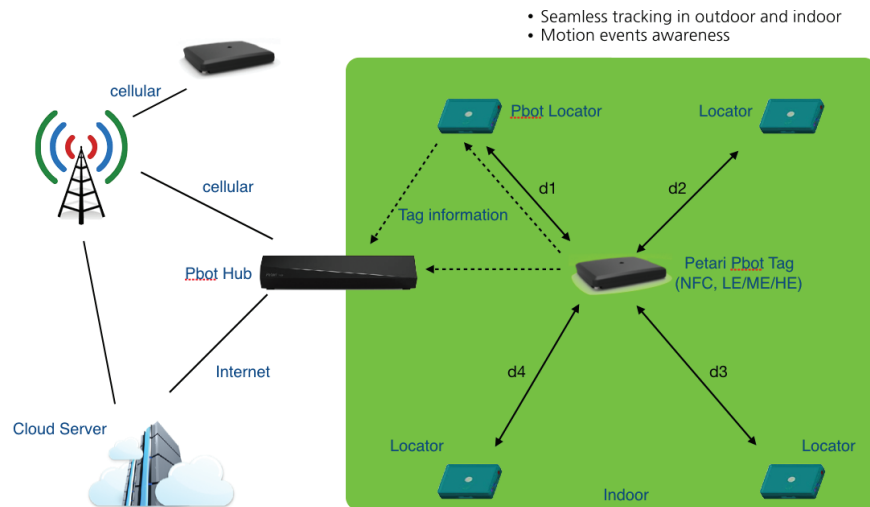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 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위치 측위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추적, 안전 및 보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주)페타리'입니다.

(주)페타리의 위치추적기술 특징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위치추적기술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이 선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해당 기술의 완성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듯 위치추적기술은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Dominant Design)이 없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주)페타리는 독자적인 위치추적 엔진 개발을 통해 '글로벌 위치추적 솔루션'과 '정밀 위치추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의해 검증되고 채택됨으로써, 우수성을 증명하였습니다.

● 페타리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글로벌 위치추적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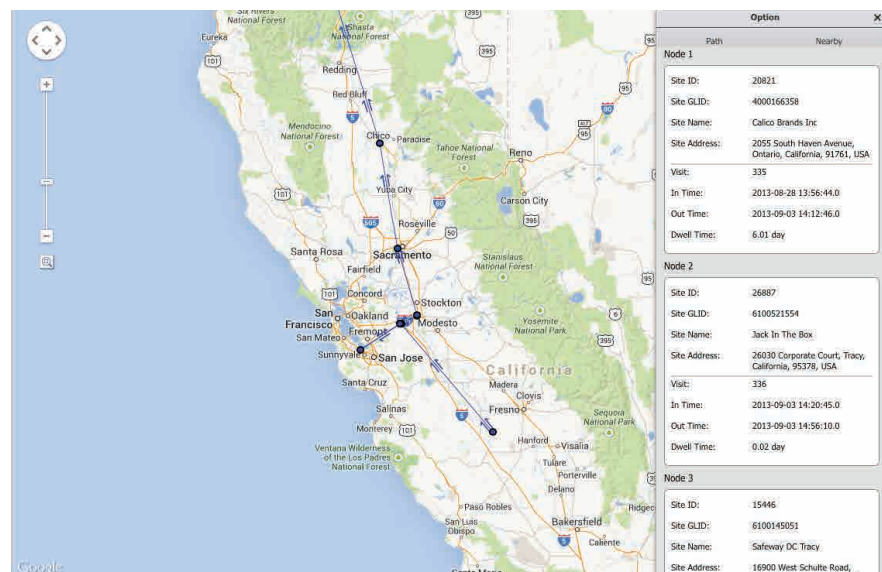
(주)페타리의 '글로벌 위치추적 솔루션'은 물류추적에 적합한 솔루션으로서, 자산의 위치 및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산의 공간적 이동에 따르는 상태 정보를 추적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자산의 위치 및 상태 정보 추적은 어찌 보면 진부한 주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이 물류라고 하는 시공간 변동과 결합하면 추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적하고자 하는 자산이 언제 물류창고에 도착하였고 그 물류창고에서 언제 밖으로 반출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류창고에 도착한 시간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물류창고 영역에 대한 Geofence를 설정하고 자산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해당 자산이 설정한 Geofence 내부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시간을 해당 물류창고에 도착한 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자주 자산의 위치를 확인하는가에 따라 물류창고에 도착한 시간의 정확도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전류를 많이 소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잦은 위치 확인은 전류를 크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자산의 이동 중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정전원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위치측정을 자주 할수록 배터리 소모가 급격하게 가속되어, 추적장치의 사용시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중 GPS 기능을 켜둘 때,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글로벌 자산 추적이 몇 시간, 며칠 단위가 아닌, 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의 물류창고 도착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위치측정을 자주 해야 하지만, 그러면 추적용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이 길어도 수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적의 정밀도를 높이면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지원하는 것에 매우 높은 기술적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꼭 글로벌 추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중국, 호주와 같은 넓은 대륙을 이동해야 하는 물류에서는 자산추적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페타리에서는 2010년경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대륙에서 미국 내 대기업과 협업하여 이러한 글로벌 자산위치추적 솔루션 기술을 검증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개별 물류 자산 추적 기술에 있어 (주)페타리가 한발 앞서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기술들은 현재 국내 기업에서도 여러 분야에 응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다방면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페타리 글로벌 물류추적 솔루션



정밀 위치추적 솔루션

정밀한 위치추적이라면 어느 정도나 정밀한 것일까요? 다르게 묻자면, 어느 정도의 위치 정밀도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은 GPS 정도의 위치 정밀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GPS의 경우 실외에서 10~15m 단위로 위치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1m 단위 이하의 위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보안이나 안전 분야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Factory 4.0의 요구에서는 공구와 자재의 조합을 위치 기반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그 위치 정밀도는 50cm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GPS도 WiFi도 BLE Beacon도, 그 어떤 기술도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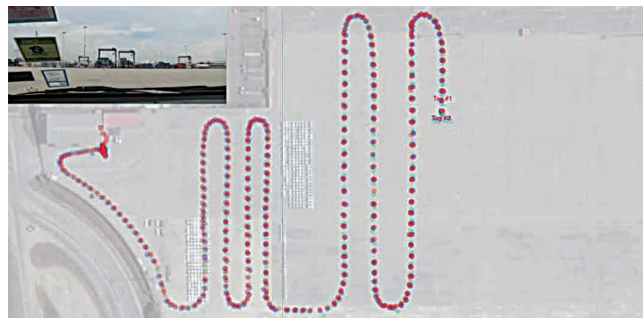
(주)페타리에서는 이와 같이 1m 이하 극히 정밀한 위치 정밀도가 요구되는 산업영역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밀 위치추적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서의 극히 정밀한 위치추적이 요구되는 항만이나 공항 등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 분야의 우수 대기업과 함께 항만에서의 자동차, 작업자, 각종 자재를 대상으로 극도로 정밀한 추적 프로젝트를 다년간 진행 중이며, 이미 그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독보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분야는 앞으로 20년간 항만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분야를 선점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 공항이나 각종 건설현장, 국가 보안 시설, 발전소와 같은 안전과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 항만에 우선적인 적용 중이며, 국내의 경우 건설현장 및 Factory 4.0과 관련한 작업 현장에 적용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페타리 정밀 위치추적 솔루션



● 페타리 솔루션 동영상



※(주)페타리는 협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참여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역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페타리: 박영진 대표(070-8768-8195) /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 사업팀(02-2156-2134~5)



이슈

I S S U E

[4차 산업혁명 시리즈]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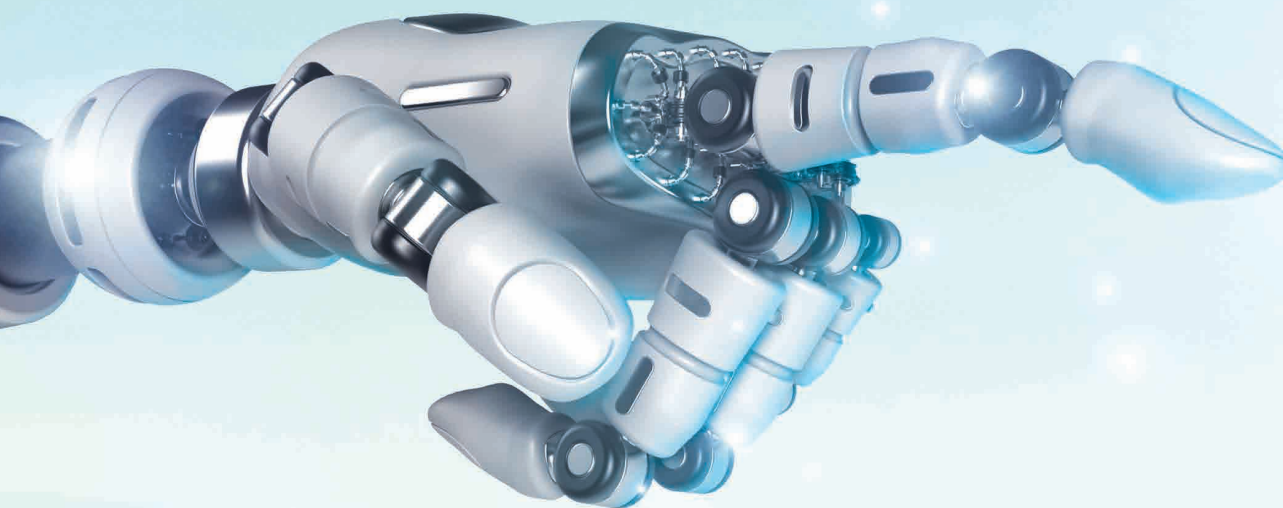


문홍집
(주)뉴지스탁 대표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자 자산운용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는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 Private Banking) 대신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컫는다. 직접 사람을 마주하고 상담하지 않고도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짜주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낮은 투자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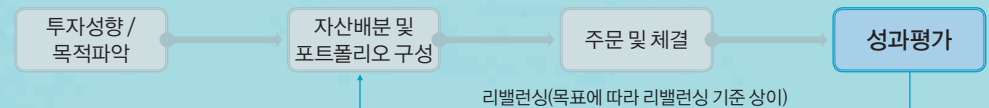
2014년, 국내에 처음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난 지 이제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Robo-Advisors are a Class of Financial Adviser that Provides Portfolio Management Online with Minimal Human Intervention' 즉,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판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배제된 자동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PB나 투자자문사가 고객 자산가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소액투자자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로보(Robo)는 투자 알고리즘(Algorithm)을 가진 로봇이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 시점과 가격 결정, 자산의 평가 등 포트폴리오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Advisor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의 재무적인 니즈에 최적화, '개인화'된 투자자문이 가능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금의 목적(은퇴설계, 내 집 마련, 학자금 등)과 리스크 관리(공격적 투자, 보수적 투자 등)의 설문 과정을 통해 로봇이 이해하여 거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 How We Create the Value



안정추구형

- ETF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배분이 목적
- 중위험 중수익(연 4~9%)
- Wealthfront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수익추구형

- 주식과 ETF를 사용한 투자수익이 목적
- 고위험 고수익(연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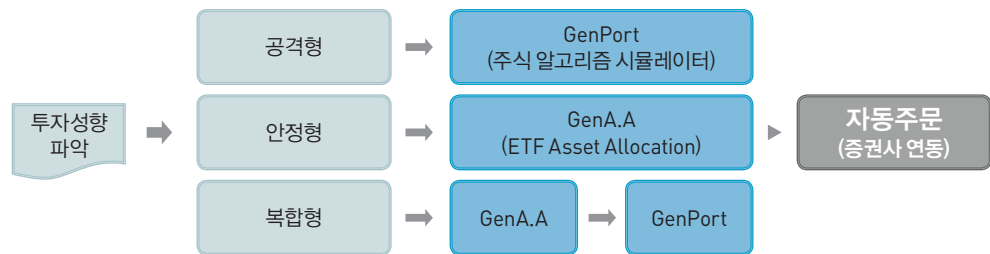
로보 어드바이저는 해외 ETF 자산배분 형태의 안전추구형 서비스와 국내 ETF와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추구 형태로 나누어진다.

국내 1호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운용사인 쿼터백은 해외 ETF로 자산 배분(Asset Allocation)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약 15개의 해외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식형의 경우 주식 ETF 55%, 채권 ETF 45%로 채워진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ETF 종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유럽투자 ETF와 이머징 ETF에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며 연간 4~9%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겟 고객층은 은행 예금과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층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자산운영사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을 통한 B2B 영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비대면이 허용되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국내 ETF와 주식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수익추구형 로보 어드바이저는 뉴지스탁 젠포트가 있다. 젠포트는 투자자가 직접 펀드 매니저가 되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가 직접 개인용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므로, 1~3%의 펀드 판매 수수료나 운용 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다. 공모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40~50개의 종목을 편입하는 반면, 개인용 펀드의 경우 종목 수의 제한이 없어 리스크 관리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종목교체 타이밍도 매우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다. 주도업종 주도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을 편입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종목교체(Rebalancing)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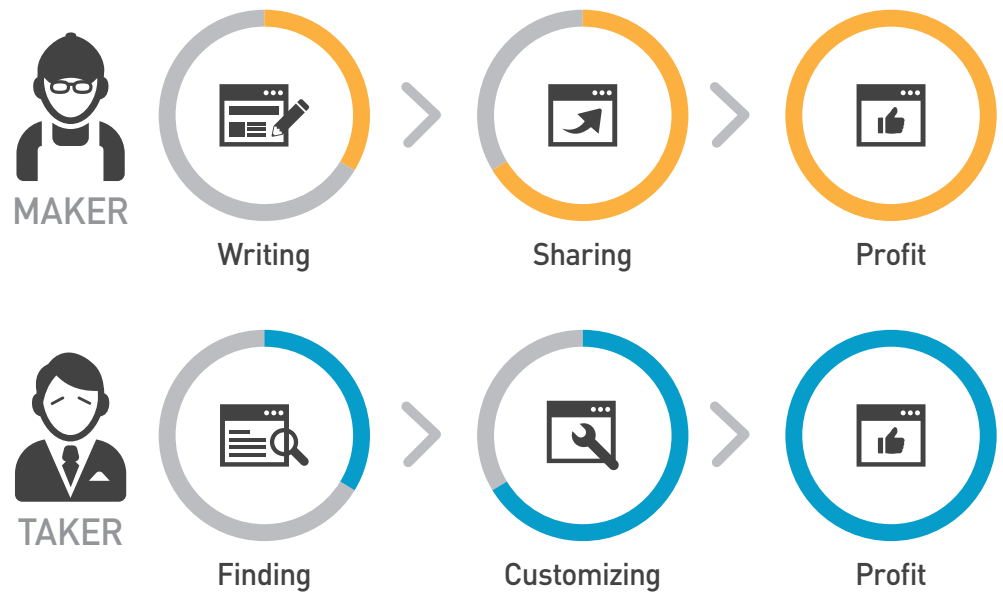
- **공격형(주식형)**: Algorithm Generator인 GenPort를 통해 개인화된 알고리즘을 설정해 개인화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운영
- **안정형(ETF형)**: 국내 ETF를 사용하는 자산배분 서비스로 운영
- **복합형**: 투자 성향에 따라 ETF와 주식의 비중을 나눈 후, ETF 자산배분과 GenPort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각각의 포트폴리오 운영

주식시장에서도 공유 경제가 뜬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증시 속담이 있지만 정작 지금이 무릎인지 혹은 어깨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뉴지스탁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팩터들을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드는 ‘젠포트(Genport)’ 툴을 제공한다. 최근에 젠포트를 이용하여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알고리즘을 시장에 내놓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알고리즘 시장’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과 알고리즘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장터’이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을 메이커(Maker)로, 알고리즘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테이커(Taker)로 부른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메이커이자 테이커가 될 수 있다. 메이커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알고리즘을 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이를 가져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알고리즘’에 ‘저PBR+ 저PER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진화시킨 뒤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완벽한 알고리즘 집단이 형성되고, 이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모티프와 같은 서비스도 공유 경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모티프는 약 250개의 트랜디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이 중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젠포트에는 6백여 개의 포트폴리오(전략)가 공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약 6천 개의 비공개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다양한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고, 이로써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높은 전략들이 플랫폼 안에서 공유된다.

젠포트의 경우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 어려워하는 고객들이 많았지만, 입소문을 통해 현재는 많은 이용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검증받는 데 젠포트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 고객 중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다른 사용자를 리딩하는 젠포트 사용자, 이른바 전문가(젠포트 전문가)의 등장으로 플랫폼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pilog

혁신적인 IT 기술들이 알파고와 자율자동차를 태어나게 했듯이 자산시장에서도 IT와 융합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조만간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알고리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기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펀드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축적되면서 점차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이 안정화 되면 은행 예금과 MMF, 부동산 등에 몰린 자금이 자산관리 시장으로 모이면서 시장 자체가 서너 배 이상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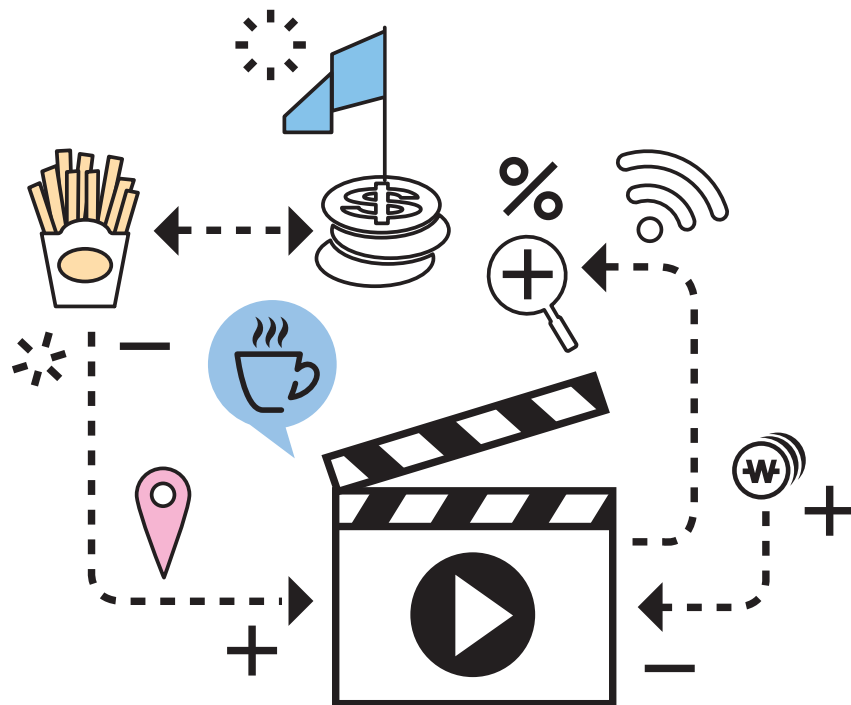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유동기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이사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18년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8.29 국무회의 통과)을 발표하였다.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18년 예산안은 약 133억으로 올해보다 약 110% 증가하며, 문화콘텐츠펀드 출자 예산은 금년 530억 원에서 2018년 580억 원으로 50억 원 확대,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도 금년 50억 원에서 2018년 100억 원 규모로 증가시킨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사드(THAAD) 영향으로 인한 중국 금한령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타격,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삼재 이상의 연속된 악재에 노출되어 산업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전년 대비 금년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18년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예산 증액은 반가움이 앞선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직접적인 투자 효과뿐 아니라, 한류 등을 포함한 간접적인 국가 브랜드 효과까

지 감안한다면, 예산 규모 확대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향후 출자사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출자 분야의 방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문화콘텐츠 분야의 출자는 취약 분야 내지 신규 분야(예, NEW 콘텐츠 등)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라, 결성 환경 및 조건이 녹록지는 않은 편이다. 이에 창투자들도 동 분야에 대한 출자사업 참여에 미온적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2~3년간 자산운용사와 공제회를 비롯한 재무적 출자자(FI)들이 흥행 성적이 양호한 영화 등 특정 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체적인 수익성이 하락 추세이다.

'17년 상반기의 경우 투자자 관점에서 상업영화 개봉작 중 5편만 손익분기 이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게임의 경우에도 블루홀스튜디오의 “배틀 그라운드” 이외에 이렇다 할 신작 게임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퍼블리셔의 다수 라인업 전략에서 소수의 핵심 게임 위주 퍼블리싱 전략으로 선택적 집중 전략 이전 중이다.

특히, 내수 부진뿐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해외 시장 역시 '16년 이후 중국의 금한령 및 THAAD 영향으로 축소되어 불투명하게 변모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16년 청산펀드 수익성이 (-)10% 내외까지 떨어지는 등 타 산업 대비 비교 열위 지속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정책 목표와 펀드 수익성까지 고려한다면, 문화콘텐츠 출자 분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한 특정 분야로 강하게 추진하기보다 당분간 문화콘텐츠 일반 펀드를 활성화하여 투자 분야를 넓히고 수익성 제고를 하는 한편, 정책적 목적의 상기 취약 분야 내지 신규 분야 투자 비율을 부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문화콘텐츠 예산의 선순환을 위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는 출자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20년 이상(한국모태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꾸준히 전문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로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4~5년간 일반적인 문화콘텐츠 분야보다 취약, 제작 초기, 뉴콘텐츠, 가상·증강현실 등 정책적인 필요성과 신규



성장이 필요한 타겟 분야를 위주로 펀드 출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운용사와 문화콘텐츠 기업 간 이견 조율을 통해 출자사업을 시행 중이나, 문화콘텐츠 펀드를 통해 창투사에게 다소 과도해 보이는 시장통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출자사업 분야별 세부 조건들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관련 출자사업 참여에 대한 메리트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에 관심 있는 펀드 출자자(LP)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한편 펀드 결성 후에는 오히려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창투사 입장에서 문화콘텐츠 펀드 결성, 운용, 투자, 사후관리 전반에 관해, 강화되는 규제 등 투자 환경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출자사업의 주요 설정 조건을 사례를 들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 i. 펀드 결성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지 주요사업자의 출자 제한, 재투자 금지로 인해 전략적 투자자의 출자 메리트와 출자 의지가 상쇄, 감퇴되고 있다.
- ii. 취약 분야 및 신규 성장이 필요한 타겟 분야의 경우 높은 주목적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펀드의 선순환 구조 저해되고 있다.
- iii. 투자 진행 시 원금 보장성 또는 투자금 우선 회수 금지로 인하여 지분투자(특히, 우선주 및 사채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iv. 방송드라마 분야는 약정총액의 50% 이상 메인투자 의무 조건 부여에 따라 동 분야의 특성상 높은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드라마 제작 완성 및 제작사의 협상력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 v.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의무 등록(GP의 책임하에 문전사의 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에 따른 효율성과 실무 적용상의 한계(매출 인식, 부가세 부담 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vi. 기타로 업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표준계약서 적용,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공연예술 분야 투자 시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정보제공 동의 등에 있어서 사실상 정보 파악의 한계 및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특히 취약 분야 및 신사업 분야의 문화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기업 보호 방침 외에도, 펀드 운용사의 기본적 수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펀드 운용사에게 과도한 시장통제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투자시장 활성화 흐름에 역행하여 펀드 결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최근 문화콘텐츠 시장 동향을 반영한 출자 분야의 방향성이 재설정 되어야 하며 상기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과 적절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 (현)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주) 투자 2본부 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 TW12호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419억 원) 대표펀드매니저
- 스틱씨제이 글로벌투자파트너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5,000억 원) 핵심 운용역 등 투자업계 경력 13년

IPEV Guideline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IFRS 적용현황 및 주요특징

- 국내 민간기업이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고 회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2007.3)
 - 많은 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에 맞추어 이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 정보의 유용성 제고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 체계

	2008년까지	2009~2010	2011년 이후
K-IFRS 선택기업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	기존 회계기준		
비상장 회사			
			비상장 기업회계기준

* VC는 약 20여 개사가 대상(상장사, 금융기관 자회사, 상장기업 자회사 등)

• IFRS 주요특징

- 국제적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 원칙 중심의 기준 체계
- 연결재무제표 중심
- 공정가치 평가 :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조

비상장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점

- 피 투자회사의 결산능력 부족으로 평가 관련 자료를 적기에 입수하기 어려움
 - 피 투자기업에 대한 자료 작성요구는 인력이나 조직상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인 순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음
- 타 창투자(조합)와 동반 투자 시 평가 주체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 동일항목에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
- 회계법인 등 평가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으로 인한 왜곡 현상 예상
- 창투조합의 투자관점(미래성장 가능성에 중점)과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대부분 보수적인 평가)의 불일치 : 공정가치 평가 시 투자 초기에 대부분 손실이 예상되어 벤처투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평가에 따른 창투조합의 수수료 부담 증가

IPEV Guideline 개요(International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Valuation)

- IPEV board*가 2년마다 개정하는 IPEV Guideline은 사모투자자의 '공정가치'를 최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제정됨

*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회계처리를 돕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됨

- 2015년 12월 버전이 가장 최근이며,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임
- 사모투자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IFRS 적용으로 회계처리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국내 창투사 등이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함

IPEV Guideline 주요 내용

- 공정가치의 개념
 -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거래를 가정한 거래가격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설적인 교환가격임
 - 상장주식의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거래 가격이 공정가치 산정의 기준이 됨
 -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자는 주주의 매도 의사 혹은 사업의 매각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일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함
 - 공정가치는 동일한 회사에 시기별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시리즈 A, B, C) 총투자금액으로 산정
 - 공정가치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일관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어야 함
- 공정가치 평가의 원칙
 - 사모펀드의 공정가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을 두므로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치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가치 산정에 미치는 잠재적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평가자의 능력이 중요함
 - 다양한 상황에 의해 공정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근 투자금액이 가장 최상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이 최선임
 - 최근에 투자된 금액은 이미 어떠한 평가자가 공정한 것으로 평가한 결과물이므로 취득원가를 최상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가자는 공정가치 평가 시 투자의 특정 조건을 고려하는데 이때에는 엄격한 법적 형식보다 투자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함
- 공정가치 평가방법
 - 평가기법 선택의 기준은 투자의 본질 및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함

- 평가방법은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A. Market Approach

- a. Price of Recent Investment
- b. Multiples
- c. Industry Valuation Benchmarks
- d. Available Market Prices

B. Income Approach

- a. Discounted Cash Flows

C. Replacement Cost Approach

- a. Net Assets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생략함

시사점

- 유럽에서는 IPEV Guideline은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 가이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IPEV Guideline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 IFRS를 준용하며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E와 VC 투자자로 하여금 공정가치 평가의 Best Practice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모펀드의 가치평가는 그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가정과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야 하므로 결국 평가자의 능력 및 경험치가 매우 중요함
- 기업환경 및 단계에 따라 적합한 평가기법이 존재하나, 어떠한 기법을 선택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지보다는 그 시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평가자의 평가에 무게를 두어야 함
 -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투자를 위해 직접 산업을 연구하고 대상 기업에 대해 충분한 스터디를 거친 심사역의 평가(투자 기업에 대한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일자 : 2017.9.1. / 정부 입법 / 상태 : 위원회 심사 중)

주요 내용

-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제7항 및 제8항)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안 제16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확대(안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창업·벤처투자 및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및 기업 재무안정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2020년 12월 31일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2020년 12월 31일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 운용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 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 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 시장(「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p> <p>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p> <p>1. ~ 2의3. (생략)</p> <p>2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2의 5.·3. (생략)</p> <p>4. 창업·벤처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4. 2020년 12월 31일</p> <p>5. 2020년 12월 31일</p> <p>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2020년 12월 31일</p> <p>1.·2. (현행과 같음)</p> <p>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p> <p>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p> <p>1. ~ 2의3. (현행과 같음)</p> <p>2의 4. 투자조합이</p> <p>2의 5.·3. (현행과 같음)</p> <p>4.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p>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안 일자 : 2017.9.12. / 의견제출 : 2017.10.23.)

개정 이유

-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 그러나 그 기간 피 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인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A 시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피 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 기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간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대기업 계열사 편입유예 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 다. (생략)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③ (생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1. (현행과 같음) 2.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2.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제9조(유예 제외) 1. (현행과 같음) 2.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3. (현행과 같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

Q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내용

종류	소유 주식 비율	
	비상장 회사	상장회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00분의 1 (상법 제402조)	100,000분의 50(또는 25 ¹⁾) (상법 제542조의6 제5항)

1. 의의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상법 제415조의2 제7항) 또는 소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2조)
- 유지청구는 보전행위라는 점에서 상법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유사하나 이사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정지시키지 않고 개별적 행위를 저지한다는 점에서 차이/대표소송과는 사전 예방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
- 이는 긴급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제도

2. 요건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면 족하고, 이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함.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무 해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회복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절차 등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도 인정(다수설)

3. 유지청구의 당사자

-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주(소수 주주, 상장회사 특례 있음).
-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위반행위를 하려는 이사를 상대로 함.

4. 차 등

- 유지청구는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를 통함. 소는 이행의 소 또는 장래 이행의 소가 되며, 가처분으로 이사의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음.
- 유지청구의 소는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로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침(다수설). 유지청구의 소는 소의 관할 등에 대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다수설).
- 의사표시에 의한 유지청구의 효과; 유지청구가 있으면 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숙고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고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 이사의 중과실 의제.

5. 벌치 등

- 상법 제631조 제1항 제3호²⁾; 부정한 거래 방지 목적
- 유지청구는 가처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지 않음(판결에 이르기 전에 행위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1)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2)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중구회제)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시장 동향

MARKET TREND

[illegible]

MARKET TREND

8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지 유 투 자

자유투자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반도체 성장펀드 출자 조합 운용사로 선정되어, 258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반도체 성장펀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 조성된 모펀드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0억 원, 250억 원을 출자했다. 주요 투자대상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공정 장비, 센서 MCU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다.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201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했다. 투자는 카페24에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로 진행한다. 올해 들어 스마일게이트는 세 번째 조합결성을 마쳤으며, 두 번째는 세컨더리 펀드였다.

세 마 트 랑 스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가 한국모태펀드의 올해 1차 정기 출자사업인 고급기술인력창업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해당 펀드는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직원이 이공계 석·박사 출신인 창업 초기기업에 60% 이상, 서울 소재 창업 초기기업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 2017년 8월에 11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창업 초기 펀드 4개, M&A 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자유 투자의 '자유반도체성장투자조합'이 258억 원으로 가장 컸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스마일게이트오퍼튜니티1호펀드',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의 'SETI고급기술창업초기투자조합'이 각각 201억 원, 187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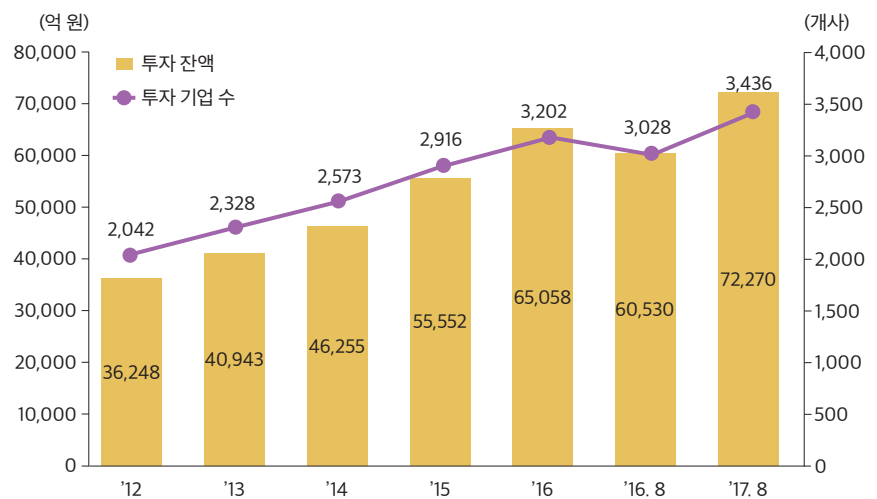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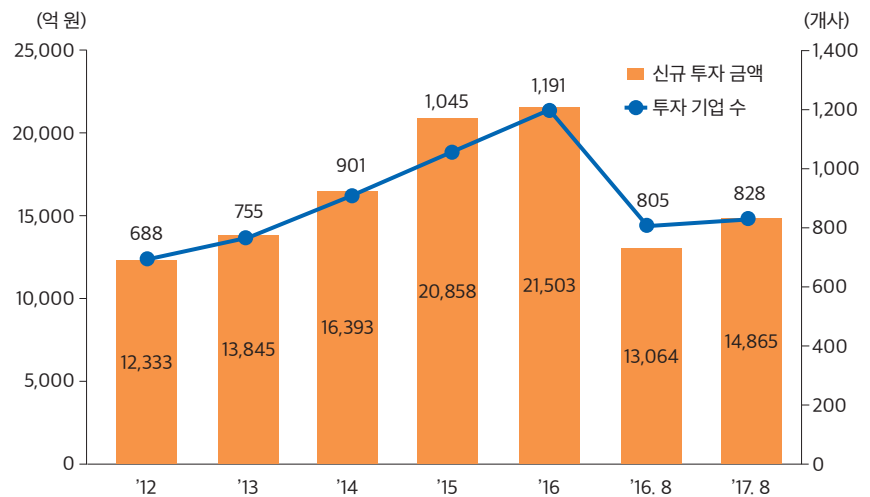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Future투자조합(17)	175	일반	중소·벤처 일반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SETI고급기술창업초기투자조합	187	창업초기	중소·벤처 일반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Essence투자조합(17)	183	일반	중소·벤처 일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오퍼튜니티1호펀드	201	일반	중소·벤처 일반
제이엑스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제이엑스1호투자조합	125	창업초기	중소·벤처 일반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Growth투자조합(17)	172	일반	중소·벤처 일반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High투자조합(17)	146	일반	중소·벤처 일반
비오케이창업투자	KVF	비오케이M&A1호펀드	31	M&A	중소·벤처 일반
동훈인베스트먼트	KVF	동훈인베스트먼트헬스케어프론티어4호투자조합	3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자유투자	KVF	자유반도체성장투자조합	258	창업초기	중소·벤처 일반
심본투자파트너스	KVF	심본투자파트너스1호투자조합	175	창업초기	중소·벤처 일반

8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신규 투자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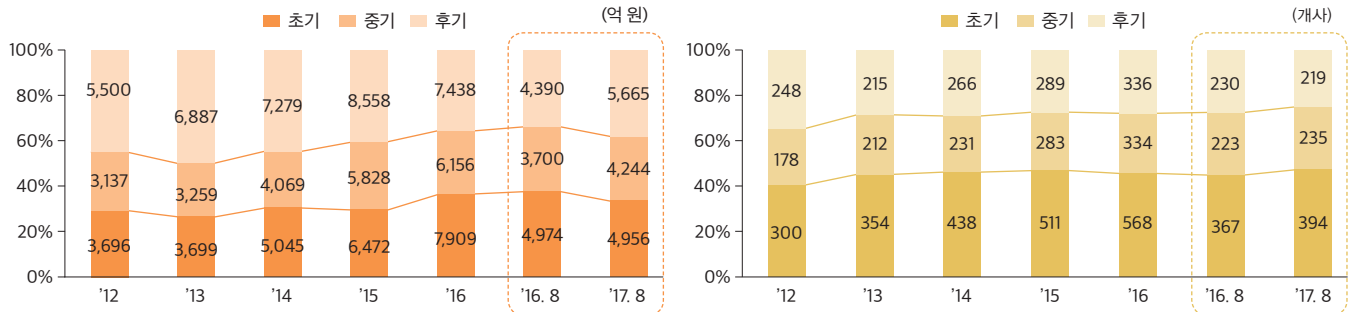
- 금년 8월까지 신규 투자는 14,865억 원으로 전년 동기(13,064억 원)보다 13.8%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828개사로 전년 동기(805개사) 대비 2.9% 증가하였다.
- 8월에는 카페24가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와이즈버즈, 만나씨이에이, 마이뮤직테이스트, 뮤지컬 벤처 문화산업 전문회사, 광명산업, 인랑 문화산업전문, 씨티씨바이오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8월까지 3,436개 업체에 7조 2,27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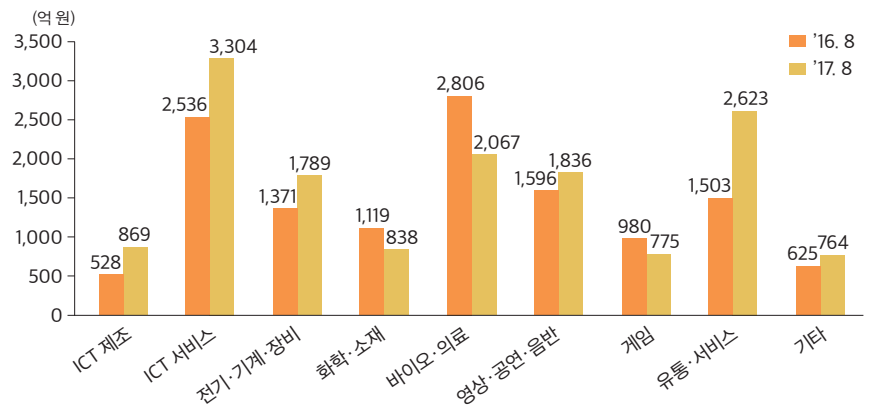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 투자

- 금년 8월까지 후기기업 투자 비중이 38.1%로 가장 컸으며, 초기기업 33.4%, 중기기업 28.5%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 투자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3,304억 원, 유통/서비스 2,623억 원, 바이오/의료 2,067억 원, 영상/공연/음반 1,836억 원 순으로 신규 투자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 (1,12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739억 원으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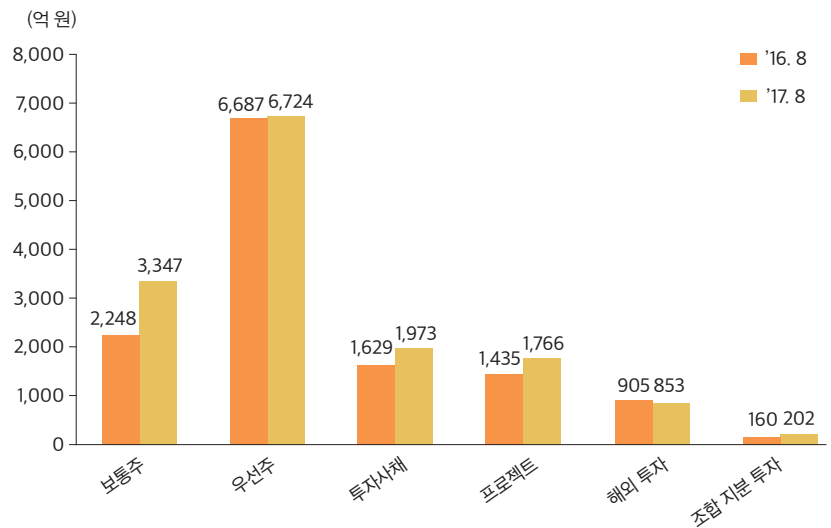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8	2017. 8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528	869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2,536	3,304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1,371	1,789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1,119	838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2,806	2,067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1,596	1,836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980	775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1,503	2,623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625	764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3,064	14,865

8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 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6,724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3,347억 원으로 22.6%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억 원 감소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7.2%) 대비 5.4%p 증가한 22.6%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1.8%로 전년 동기(11.0%) 대비 0.8%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5.8%로 전년 동기(6.9%) 대비 1.1%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8	2017. 8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2,248	3,347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6,687	6,724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1,629	1,973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1,435	1,766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905	853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160	202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3,064	14,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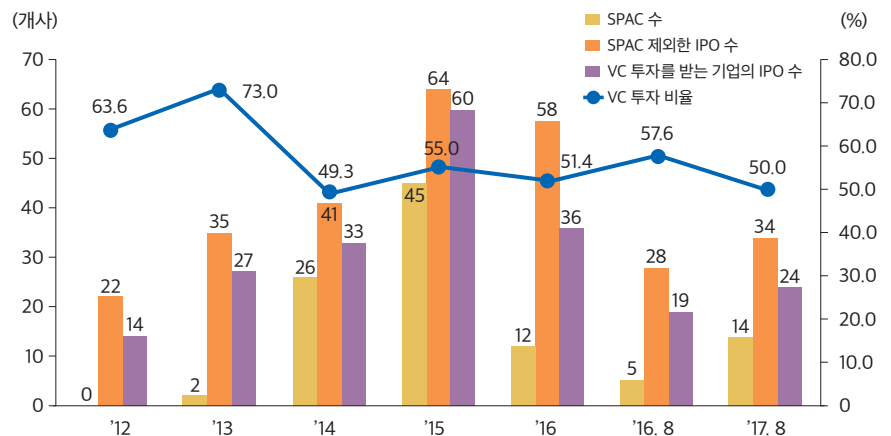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54.4%)을 비롯한 수도권(77.5%)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8.5%, 해외 5.8%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40개사 853억 원(5.8%)이 투자되었다.

MARKET TREND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8월까지 회수원금은 5,146억 원이며, 그중 장외 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56.5%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 및 IPO가 각각 17.3%였다.
- 특히, 8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57건의 거래를 통해 236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156억 원(6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80억 원(33.9%)이었다.
- 8월에는 코스닥시장에 10개사(디앤씨미디어, 지니언스, 데이터솔루션, 모트렉스, 엔에이치 기업인수목적 12호, 컬러레이홀딩스, 알에스오토메이션, 이더블유케이, 하나금융 10호 기업인수목적, 덕우전자)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지니언스, 모트렉스, 알에스오토메이션, 덕우전자 4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8	2017. 8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2,186	886
M&A	72	22	163	150	329	86	179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1,291	885
장외 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2,289	2,273
	채권	1,165	1,025	1,311	1,045	699	637
기타	188	736	217	342	476	157	286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6,708	5,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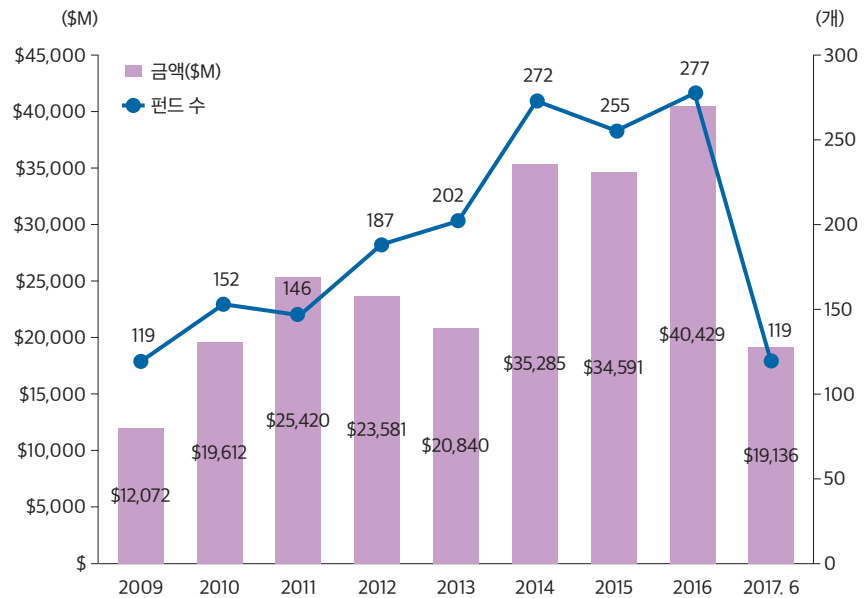
(VC 포커스) '17년 상반기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NVCA(미국)에서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통계 요약
- (재원) 미국 119개 19,136백만 달러
- (투자) 미국 3,917개사 37,765백만 달러

※ 환율은 2017년 6월 30일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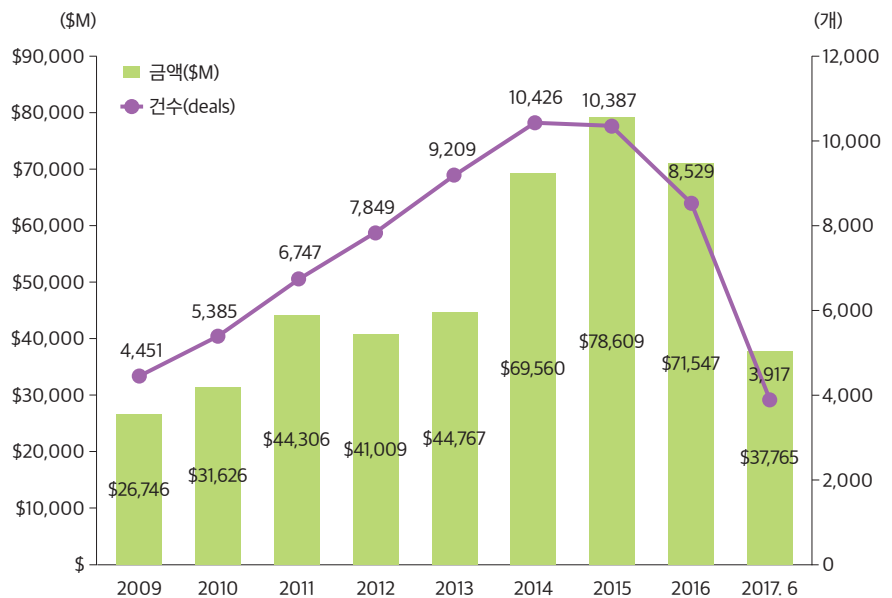
재원

- (신규펀드) 2017년 상반기에는 119개의 펀드가 19,136백만 달러(21조 9,107억 원) 규모로 신규 결성



투자

- (신규 투자) 2017년 상반기 신규 투자는 3,917건(Deals), 37,765백만 달러(43조 2,409억 원)를 기록



MARKET TREND

- 2017년 상반기에는 암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Grail과 생명과학 연구기업 Context Logic이 가장 높은 신규 VC 투자금액을 유치

2017년 상반기 분기별 신규 투자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Grail Inc.	914	Lyft Inc.	600
2	Verily Life Science LLC	800	ContextMedia Health LLC	500
3	Social Finance Inc.	500	Houzz Inc.	400
4	Instacart Inc.	400	Guardant Health Inc.	360
5	WeWork Companies Inc.	300	Peloton Interactive Inc.	325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성장단계별 신규 투자) 미국은 2012년 이후 성장단계별 비중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17년 상반기에는 Angel/Seed가 감소하고 Later Stage가 증가

성장단계별 신규 투자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
Angel/Seed	8.1	5.5	9.4	11.0	9.4	10.4	9.2	8.4
Early Stage	34.2	30.8	30.8	32.1	28.7	29.9	32.5	30.5
Later Stage	57.7	63.7	59.8	56.9	61.9	59.7	58.3	6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업종별 신규 투자) 전통적으로 Software 중심의 ICT 서비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는 46.6%, 2017년 상반기에는 42.0%의 높은 투자 비중 기록

업종별 신규 투자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
ICT제조	9.6	7.7	6.7	6.4	4.9	3.1	3.7	3.0
ICT서비스	27.0	33.0	33.1	34.9	42.9	41.4	46.6	42.0
바이오·의료	28.1	21.2	24.8	24.7	21.1	22.5	21.5	23.7
환경·에너지	8.6	7.3	7.2	4.3	3.0	1.6	2.4	1.4
문화콘텐츠	3.7	4.7	3.2	4.0	3.1	2.6	1.8	3.3
소비재·서비스	1.7	3.6	4.0	3.7	2.6	3.1	3.0	1.9
유통	7.8	9.1	7.4	8.4	7.2	6.9	4.7	5.9
기타	13.5	13.4	13.6	13.6	15.2	18.8	16.3	18.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VC 포커스) '17년 상반기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회 수

- (회수유형) 2017년 상반기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전체 회수금액은 348건 25,174백만 달러(28조 8,244억 원)를 기록했고, 건수 기준으로 IPO가 27건(7.8%), M&A가 321건(92.2%)

회수유형

(단위: 건, %,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
IPO	41	46	60	87	125	77	40	27
(비중)	5.8	6.3	7.0	9.8	11.8	7.8	4.9	7.8
M&A	660	688	803	800	932	909	781	321
(비중)	94.2	93.7	93.0	90.2	88.2	92.2	95.1	92.2
합 계	701	734	863	887	1,057	986	821	34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금액	31,432	34,235	54,736	36,262	82,343	48,551	54,319	25,174

- 2017년 상반기 미국의 IPO는 사진과 동영상 공유 메시지 앱 '스냅챗'을 운영하는 Snap이 3,40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Blue Apron Holdings(300백만 달러), Cloudera(225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2017년 상반기 분기별 IPO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Snap Inc.	3,400	Blue Apron Holdings Inc.	300
2	MuleSoft Inc.	221	Cloudera Inc.	225
3	Alteryx Inc.	126	Okta Inc.	187

*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2016년 미국의 M&A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기업인 AppDynamics가 3,70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Chewy(3,000백만 달러), Electric Lightwave Holdings(1,420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2017년 상반기 분기별 M&A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AppDynamics Inc.	3,700	Chewy Inc.	3,000
2	Electric Lightwave Holdings Inc.	1,420	Moat Inc.	850
3	SquareTrade Inc.	1,400	Ironplanet Inc.	759

*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는 9월 30일경 8,700억 원 추경 예산이 포함된 3차 정시 출자사업의 위탁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류심사를 통과한 70여 곳의 예비 적격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주부터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사의 최종 선정 운용사 수는 정량 및 정성평가를 모두 끝난 뒤 총합산점수가 나와야 결정된다. 국민연금기금과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은 대부분 모태펀드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주 제안서 제출을 마감한다. 이는 모태펀드에 선정된 운용사가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의 추가 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초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인 고급기술인력창업펀드(중진계정) 분야에 선정된 위탁운용사(GP)들이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 운용사는 미래에셋벤처투자(250억 원), 포스코기술투자(200억 원),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167억 원), 제이엑스파트너스(125억 원), 코메스인베스트먼트(145억 원), 인터밸류파트너스(125억 원), 케이런벤처스(150억 원)로 모두 7곳이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LP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성시한을 연장한 바 있으나 출자사업 투자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이유에서 1차 출자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콘텐츠기업육성 펀드, 소액투자전문 펀드 등의 분야는 아직도 LP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용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태펀드의 2017년 수시 출자사업 계획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지난 21일 VR 빌딩에서 변경 공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모태펀드 2017년 수시 출자사업 계획 주요 변경사항

항목	세부내용
출자규모	<p>변경사항 중진계정 예산 조정(기 선정액 차감 반영), 환경계정삭제(선정 완료), 문화 계정 예산 조정(기 선정액 차감 및 소액투자 전문 분야 추가), 미래계정 명칭 변경(과기정통계정)</p> <p>변경 전 중진계정 401.5억 원 내외, 환경계정 200억 원 내외, 문화계정 30억 원 내외, 미래계정 120억 원 내외, 스포츠계정 100억 원 내외</p> <p>변경 후 중진계정 352.7억 원 내외, 문화계정 129억 원, 과기정통계정 120억 원 내외, 스포츠계정 100억 원 내외</p>

최대출자비율	<p>변경사항 중진계정 KVF 결성목적분야 및 과기정통계정 가상, 증강현실(VR, AR) 분야 최대출자 비율 상향</p> <p>변경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진계정 KVF 결성목적 분야: 10억 원 이내 2. 과기정통계정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50% <p>변경 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진계정 KVF 결성목적 분야: 10% 2. 과기정통계정 가상·증강현실(VR·AR): 60%
상세 분야별 출자 계획	<p>변경사항 중진계정 출자 분야별 예산 통합</p> <p>변경 전 M&A 100억 원, 세컨더리 170억 원, KVF 결성목적 131.5억 원</p> <p>변경 후 M&A, 세컨더리, KVF 결성목적 분야에 대해 352.7억 원 범위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출자</p>
중진계정 가점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 확정으로 신속한 펀드 결성이 가능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운용 중 조합의 투자 소진율이 높은 경우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청년창업, 재기 지원)의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추가 출자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출자비율
문화	소액 투자 전문	<p>약정총액의 70% 이상을 원천 IP, 문화 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소액투자.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문화산업 전반에 투자 가능함. (단, 건당 투자액은 5억 원 이내, 업체당 총 투자액은 20억 원 이내로 제한함.)</p> <p>*원천 IP란, 소설, 웹툰 등 타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 콘텐츠를 의미하며 동 펀드에서 기 투자한 원천 IP를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에 투자(프로젝트 투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도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투자자로 인정함.</p>	67%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최근 상반기 출자사업을 완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1,800억 규모 출자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출자는 PE의 사업재편(800억 원), 해외 진출(400억 원), VC 세컨더리(600억 원)로 각각 구성됐다. 하반기 출자사업에서 집행 금액이 1,800억 원까지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못 채운 부족분을 추가한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까닭이다. 애초 산업은행은 상반기에만 6,100억 규모로 출자를 집행하려 했으나 일부 운용사들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상충 문제로 중도에 참여를 철회하면서 4,750억 규모로 운용사 모집을 마감했다. 이번 출자를 마무리하면 연초 진행한 신산업 육성 펀드까지 포함해 2017년 한 해 동안 총 8,00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이 위탁운용사 3개를 선정해 총 5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GP 출자 비중은 펀드 규모 대비 5%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이며 투자조건으로 펀드 최소결성 규모 400억 원 이상을 내세웠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어야 하고 투자 기간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9월 29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 중 1차와 2차 평가를 마무리한다. 11월에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공제회

행정공제회는 10월 중 2~3개의 운영사를 선정해 1,200억 원 이내로 블라인드펀드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 분야 및 투자전략은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다만 신생·소형 운영사보다는 설립이 5년 경과되고 PEF 운용자산(청산포함) 누계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공제회의 마지막 국내 블라인드펀드 출자는 지난 2015년이었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스틱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를 블라인드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각각 400억 원씩 출자했다.

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9월 25일 총 5,500억 원에 달하는 블라인드펀드 신규 출자에 따른 운용사 선정 공고를 게재했다. PEF 부문 4,000억 원, VC 부문 1,500억 원 이내로 출자할 계획이며, PEF 위탁운용사는 4개사(A·B Type 각 2개사 내외), VC 위탁운용사는 6개사 이내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최근 3년 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국내 소재 운용사다.

타 기관 출자 확약(매칭) 조건이나 AUM(운용자산) 등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아 많은 운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펀드 모집 초기 단계의 운용사라도 공제회의 출자 확약을 바탕으로 원활한 펀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안서는 10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정량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선정해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난 9월 14일, 농식품 모태펀드 3차 수시출자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시너지 IB투자를 운용사로 선정했다. 시너지 IB투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조합결성을 마쳐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블라인드 벤처펀드 구성에 최대 400억 원을 5개 운용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출자 금액은 100억 원씩 3곳, 50억 원씩 2곳에 각각 배정한다. 50억 원을 출자받는 운용사는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운용사로 이른바 '루키 리그'에 해당한다. 결성 예정 금액의 40% 이상 기관투자자 및 일반법인으로부터 출자 확보받은 곳을 대상으로 이번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이미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친 한국 IT펀드(KIF)와의 매칭 또한 가능하며 펀드의 최소결성 규모는 일반 리그 300억, 루키 리그 150억 원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모두 가능하다. 지난 9월 22일 제안서를 마감, 1차 심사(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구술 심사 대상인 2배수인 10곳을 추려 10월 셋째 주에 구술 심사를 실시, 10월 31일까지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

광주광역시시는 최근 출자자 모집을 완료한 청년창업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본격 투자에 나선다. 펀드운영 기간은 8년이며 주요 투자 대상은 청년창업 초기기업으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유망 스타트업이다. 운영사인 쿨리코너인베스트먼트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시장성이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해 자금 투자와 경영 컨설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